

남원 화장품산업 메카 조성 '탄력'

(주)생장, 노암산단에 연면적 1980㎡ 규모 착공식 시, 2022년까지 30~40개 기업 입주 시설 갖추기로

남원의 화장품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주)생장(대표이사 이종오)이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내 특화단지인 화장품집적화단지에서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 15일 착공식을 가졌다.

생장은 7051㎡ 부지에 연면적 1980㎡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9월 준공될 예정이며 준공과 동시에 현재 전주분사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생장은 지난해 9월 남원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지지를 분명히 해 왔다.

시는 판매장과 체험장을 갖춘 생산시설의 착공으로 화장품 제조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로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종 알로에인 생장알로에의 재배 확대와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향후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화장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

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임대형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2년이면 화장품집적화단지에는 화장품 관련 기업 30~4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와 산업인프라 조성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상호 협력이 확대되고 기업이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원이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지난 15일 (주)생장 관계자들이 노암산업단지 내 화장품집적화단지에서 화장품공장 착공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읍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재현

이평면 일대 500여명 참석 격문낭독·신사발통문 작성 등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고부봉기 재현 행사가 지난 15일 정읍지역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평면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예동마을에서 출발해 말목장터까지 이어지는 농민군 진군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격문낭독과 식전공연, 신사발통문 작성, 기념식 등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된 이후 첫 행사로 의미가 남달랐다.

고부봉기는 1892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해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의 농민군이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또 1894년 음력 1월10일 500여명의 농민군이 조직적으로 봉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행동에 옮긴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11일)로 제정된 원년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역



사 바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2019년 개별주택 1만8986가구 공시가격 열람

4월4일까지... 의견제출도

고창군은 2019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다. 이번엔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

시가격(안)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986가구이며(공동주택 4720가구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

유자(이해 관계인)는 누구나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저소득 여성가장 대상 노후시설 교체·보수공사

익산시는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전담조직인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전담·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주거불편과 노후시설에 대해 교체와 보수공사를 통해 여성가장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여성가장세대를 위해 방범장, 출입문 안전장치, 창문 시건장치 등 방범서비스와 노후전선교체,

방충망, 세면기, 수전, 스위치, 콘센트 등 생활불편서비스가 진행된다.

또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와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서비스 등 4개 분야를 시행한다.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이 사업을 위해 여성가장 100여 세대를 접수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70세대를 확정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63-859-448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라이온스클럽 "인재양성·불우이웃에 써 달라"

일일찾집 수익금 620만원 순창군에 기탁

순창라이온스클럽은 최근 순창군청을 찾아 육친인제숙 인재양성과 지역 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62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이날 기탁한 성금은 지난달 22일 순창라이온스클럽 주관한 일일찾집의 수익금이다.

나현주 순창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일일찾집으로 고생한 순창라이온스 클럽 회원들과 행사장을 찾아 후원을 잊지 않은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 그는 또 "지역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봉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라이온스 클럽은 지난해 300만원 상당의 물고기 기증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무료로 연탄나누기 행사, 사랑의 도배·장판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군산시, 157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군산시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펼쳤다

고창군에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157개 어린이집에 제안업체의 사업설명에 이어 개별업체 선택을 통해 총 569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연 2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로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황대성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마다 미세먼지 탐방자 지정으로 환경부 대기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어린이집 대응 매뉴얼'도 집중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흠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 문의. 010-6834-7400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